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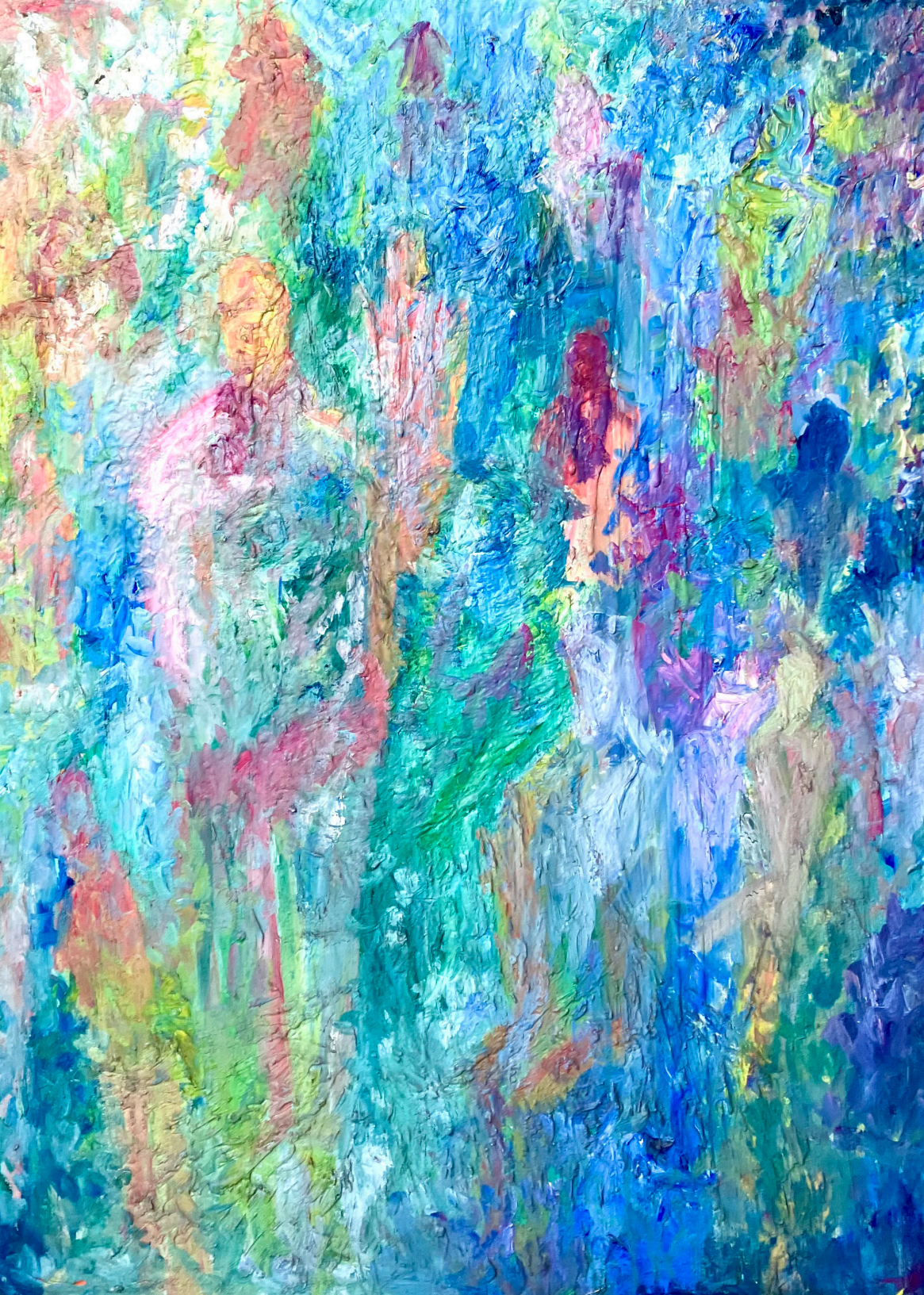


절인오이로 피리불기

글·이미지 김희진

편집 정유선

기획 및 구성 피그헤드랩



1부 부속과 부유

부유하는 청년은	7
지나치게 긴 정장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다.	10
지치지 않기 위해	12
별 일없이 살지만	16
이성의 거주를 위한 살림 설계도	20



부유하는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지 만 1년이 되었다. 시간은 그렇게도 성실하게 달려주었다. 그와 반대로 한동안 나는 무기력했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 필요한 부속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되어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날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설부르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어찌면 그래서 잠시 거기에 기대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나를 규명하려는 괜한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다. 더 거대한 질문이나 대답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자만이다. 그러니까, 튀고 싶었던 것이었다. 특별함을 바랬다. 구태여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가끔은 신비함에 감긴 어떤 모습의 나를 상상했다. 재밌게도 이는 결국 가장 처절하게 고립을 내게 주는 방법이 되었다.

대학에서 전공으로 물리학을 택했다. 어떤 명분보다도 앞서 말한 욕구에 의한 선택이라 예상한다. 배움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 내게 밀려오는 문장들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들이치는 울렁임과 뿌리치는 수행의 욕구가 내장 속에서 격렬하게 다투었다. 그때의 나는 분명하고도 적당한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대체 무얼 가리키고 걷는지 알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지금의 본질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불안함을 그대로 견디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술을 내 삶에 끌어들었다. 혹은 예술이 내게 다가왔다. 이것이라면 -설령 계속 곁에 머물기 힘들다 해도- 나는 참거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외로운 날을 보냈다. 자신을 찾겠다고 나서는 중에도 주변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내 급하게 배우지 않은 어법을 좇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졌다.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 나를 전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훑쳐보았다. 이토록 간사한 방법으로 나는 서 있었다. 얼마 뒤에 밀려온 부끄러움을 참기 힘들었다. 이런 내게 스스로 지쳐 잠시 표현을 유보하는 시기도 있었다. 서투른 내가 갑갑해서 모든 것을 잠시 그대로 두었다. 멈춰선 후에 어렴풋이 흐르는 무언가를 붙잡았다.

다들 내게 창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굳이 이것을) 왜 하느냐고 질문한다. ‘잘’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가만히 고민하다 입을 떼다. 나를 그곳으로 추동하는 힘이 무엇일까 묻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책임을 이제야 다하고 있는 것이라 대답한다.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일인칭으로 만들고, 다가오는 것에 응답하는 일 말이다.

이렇게 얻은 솔직함이 내게는 매우 소중하다. 나는 가치를 논하기 전에 함께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빚어 세우는 중이다. 이름에서 얻는 편리함을 외면하고, 그 안의 이야기를 살피고 싶다. 분명히 다시 고립은 찾아올 것이다. 아직 가지 않은, 또는 영원히 가지 않을 동반자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그때마다 솔직하게 임하고자 다짐한다. 지금까지 여정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앞으로의 시간을 끝내 잠기지 않은 채 건널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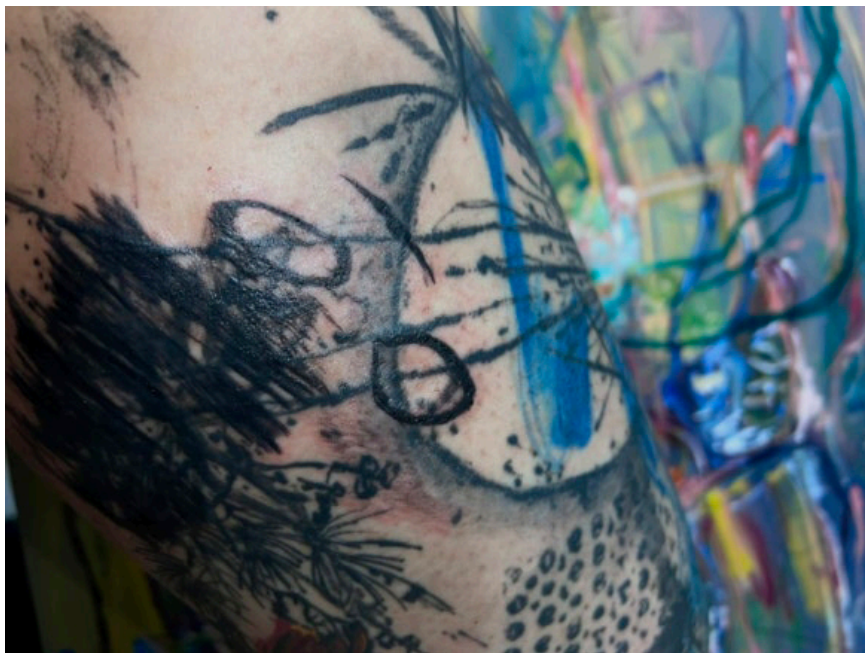
지나치게 긴 정장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다.

지나치게 긴 정장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다. 실은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에게 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갈색 구두를 신고 노란색 타이를 맨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긴 흐름을 탔다. 시간은 그대로 흘렀고, 무엇을 원해도 나는 나다. 하지만 그 아래 무대는 계속 변한다. 내가 서 있어도 누군가 와서 광하고 몸을 부딪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닥의 돌기는 오돌토돌하게 자라나 귀에 꽃혔다. 가끔은 극장의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기도 한다. 그만큼 간절했다. 누가 내게 뭐라든 상관없었다. 통에서 쓸만한 찌꺼기를 찾으면 한 움큼 허리춤에 박아 넣은 후 유유히 나는 사라졌다. 대부분 신선하진 않지만, 날이 선 맛을 가진 폐기물이다.

매일 심부름을 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꿈보다 과감하게. 조화를 놓치지 않도록. 공연이 끝나고 혼자 남아 무대를 청소할 때 아무도 남지 않은 이 판을 홀로 지휘한다. 감독도 배우도 관객도 모두 내가 된다. 금으로 세워진 성전을 살금살금 무너뜨리다 단번에 잡아챌 것이다. 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생각한다. 욕망은 벽 틈으로 충분히 고개를 내민 뱀과 같아서 뒤늦게 방아쇠를 당겨도 완전히 멈추기 힘들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춰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분명히 다른 무엇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공간에 관한 연구는 순간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애초에 이 대책 없고, 장담 못 할 영속적 울림이 실재의 확률 함수와 같은 본질이다. 어쨌든 반듯한 천이 벽면에 종속된 한, 여행자는 시선의 연속, 또 그 연장에서 다시 당장의 사건을 의심해야 한다. 허구한 날 의심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 같은 하늘만 바라보며 살고 싶지 않다면 움직여야 한다.

현상을 관찰하는 것 또한 시간의 연속이 가정되지 않으면 찰진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순간에 갇혀 맥락 없는 조건만을 본다면, 언어가 정확히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본질이란, 확률에 의해 근사치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권력은 평행선을 구부려, 다시 우리를 쳃바퀴에 가둔다.



지치지 않기 위해

시선은 그 자체로 유동적이다. 정지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눈은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그 안의 상념은 안광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관찰이 상황을 결정한다. 반대로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다. 모든 물질은 매우 훌륭한 형태의 파동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연극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싶다. 예술이 구체적 내러티브 없는 그 자체로 해석되기를 바란다. 그냥 보임에 따라 그 이야기를 자신의 파동함수로 결정할 수 있는 작업을 중시하고,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진 채, 누구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예술의 권위를 한 층이나 두 층 정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 또한 매우 흔한 것, 또는 잠깐 좋아함을 받을만한 핫한 것들. 이정도가 작업의 루틴이며, 의미이다. 술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바탕이 된 무대이며, 보조가 된 배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사건의 선후 관계도 조금만 더 살피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향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술기가 아니다. 잠시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시계의 울림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이거나,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일 때 그렇다. 그것이 술기와 닿아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개 그것은 내가 만든 환상이니까. 하필이면 여기서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어버린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미지 소비도 다소 그러하다.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힌 담론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향유자에게는 잠깐의 시선을 내려놓을 이미지가 필요한 것뿐 인데, 행위자는 다시 매끈한 돌

의 제련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연극은 연극 그 자체로 예술적이지 않다. 어쨌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향유자에게 편하다. 부진한 나는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박수치고 감상할 때, 매체의 우위를 정하는 것은 멍청하다. 애초에 같은 논의를 시행할 수 없으니 그렇다. 설득하고, 설득당함을 유보하지 말자. 권위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

나는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을까. 매초에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약을 먹던 어제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진 지금은 오히려 다시 감각에 예민해졌다. 소리 없는 TV를 보며 웃는다. 어제는 선생이 내게 본질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를 버릴 바에야 차라리 근본 없는 나에게 주어진 자격증을 누리라고 했다. 항상 나는 안하는 내가 밉다. 그래서 누가 알팍한 칼날을 들이대면 그것을 내 심장에 맞추어 꽃았다. 상처는 그/그녀가 아니라 내게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예민한 창조가 끝났을 때 내 청년기도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따로 든다.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없다. 차라리 가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땠을지는 알 수 없다. 괜히 얼굴로 손을 가리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까하는 고민을 한다.

상상을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파동적으로 기술된다. 이에 따라 총알의 초기 시간과 위치, 최종 시간과 위치가 주어지면 관통은 시공의 모든 경로를 거쳐 이동한다. 그리고 모든 경로에는 각각 적절한 가중치가 할당되어 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총구는 항상 바이올린 형태의 파동으로 움직이고, 이 파동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탄생이 일어난다. 그 자체로는 점이지만 공간에 퍼져있기에 통치적이다. 이상적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사냥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오류를 항상 갖는다. 이는 어떤 지점에서 능력이 보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임자의 위치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더 많은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 누구에게나 가

까운 사람이 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혼돈을 주고 싶진 않았다. 거짓 말을 일삼다보니 나도 좀 헷갈린다.





별 일없이 살지만

별 일없이 살지만 그렇지 아니한 인생을 바라며 사는 것, 또는 그렇게 걷는 것이 익숙한 듯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은 무척 비참하다. 자유롭다는 인상을 그다지 느껴본 적 없으면서 그것을 좇느라 발바닥이 모두 뜯어져 더 이상 어딘가 발을 딛는 것이 두려운 미물이라. 정말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몸에 상처를 새기거나 피부 안으로 욱여넣는 것이 익숙한 철새와도 같다. 목적지가 달리 정해져있지 않는 데에도 -차라리 그렇다면 걷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언가 동작하고 있다는 인상과 느낌 자체가 그것의 충분한 동력이다. 부조리한 것이 당연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나서는 일과 그에 대한 의무감이 봉긋한 -또 하나의 부조리와 같은- 흑으로 종아리에 붙어있다. 커피를 몇 모금 마시다보면, 가슴이 급하게 뛰는 현재와 그렇지 않았던 과거와 그것을 멈출 미래가 동시에 관찰되는데 마치 물을 위로 내뿜는 분수가 낙하-또는 죽음-를 고려하지 않고 뛰어올라 그것을 맞이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필요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쉬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우울은 쾌를 얻게 하는 ‘순간’들을 만드는 것에 능숙한 감각인데, 사적인 해프닝이 인생이나 인격의 전반을 난도질한다는 점에서 희미하게 한 순간의 위력적인 자아를 느끼게 하는 매개나 그 지지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 하지만 어디서 누구든 발견해주길 기다리는 폐허를 건축하는 과정인 것. 잘게 파손된 내부는 다시 주체에 스미고 변모하여 흐른다. 사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괜찮다고 자위하는 모습을 내비치며 주위를 집중시키는 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거의) 실패하고 마는 작업과 그의 연속을 지켜보거나 행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나를 모욕하는 것까지도 감싸 안는 능력이다. 여기저기 누구든 붙잡고 포즈를 취한다. 상투적인 선의는 오히려 폭력으로 다가온다. 틀어진 인간이 여기 있다고 외친다. 상대는 나와 당신이다. 물론 폭력이다. 강요에 지친 우리는 사랑의 설득을 배워야 한다. 이름은 생각보다 아주 큰 강박이다. 가령 우리는 관성적으로 ‘등록된’ 이름을 갖고 성별을 판단하거나, 지능을 판단하거나, 재력을 판단한다. 이미 이름은 바람이자, 평가이다. 많은 틀이 씌워져 있다. 이 틀에 갇히면 갇힐수록,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폐성에 가까워진다. 애석하지만 틀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틀에서 박대당한 나는 소리 지른다. 분열로 남고 싶지 않다. 차라리 틀과 공명하려고 노력한다. 남의 잔치에 올라 불을 지른다. 틀을 매일 뒤집을 것이다.



연필을깎는명도기



이성의 거주를 위한 살림 설계도

연극은 하나하고 둘에서 시작한다. 다음을 생각하고 정돈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익숙한 것은 시선을 끌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는 낯선 방법으로 몸을 드러낸다. 속옷을 살짝 들추거나, 쇠골을 과시한다. 정교히 만든 얼굴을 약간 찡그려 여드름을 쥐어뜯는다. 감정을 과장하고, 쓴 목소리를 낸다. 기능이 결핍된 옷을 입고, 유혹의 단상 앞에 선다. 다리를 조금 벌리고, 허리를 약간 흔든다. 말하자면 사랑을 모방하는 몸짓이다. 매우 기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스톤 운동을 한다. 감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가깝다. 명심해라. 사실 같은 것은 본질과 별로 연관이 없다. 비록 모호할지라도 목적을 위한 경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웃어라. 어떤 모순에 고독을 느끼더라도 시선을 고정해라.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던져진 성기가 운동하는 이유는 시장의 톱니인 바구니를 벗어나 오히려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는 다시 자신이 전시장에 위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혹은 그래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치다. 이런 식으로 톱니의 연극은 철저하게 존재한다. 누구든 잘 팔리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채로움 없이 지루한 세계다. 얼룩의 벽에 갈겨 놓은 뭇은 양증맞은 것이 아니다. 다시 나는 회전하고, 회전한 다음 또 흔든다(흔들린다).

사라지지 않고자 노력함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특별히 안정적인 이상은 언제나 보존할 것이 있어야 성사되기 때문이다. 피리를 불면 어떤 공명이 일어나 상쾌한 소리를 낸다. 이렇듯, 고유함의 의미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 분포한다. 무대 아래 관찰자는 다시 구체를 바라본다.

다들 작은 사각형 안을 들여다보며 늘어진 배를 내놓고 있다. 귀에는 알 수 없는 식물이 이어졌고, 어깨에는 옥색의 죽지 않은 끈이 겨우 걸쳐 있다. 가슴에 그려진 황금비율의 사각형이 그나마 안정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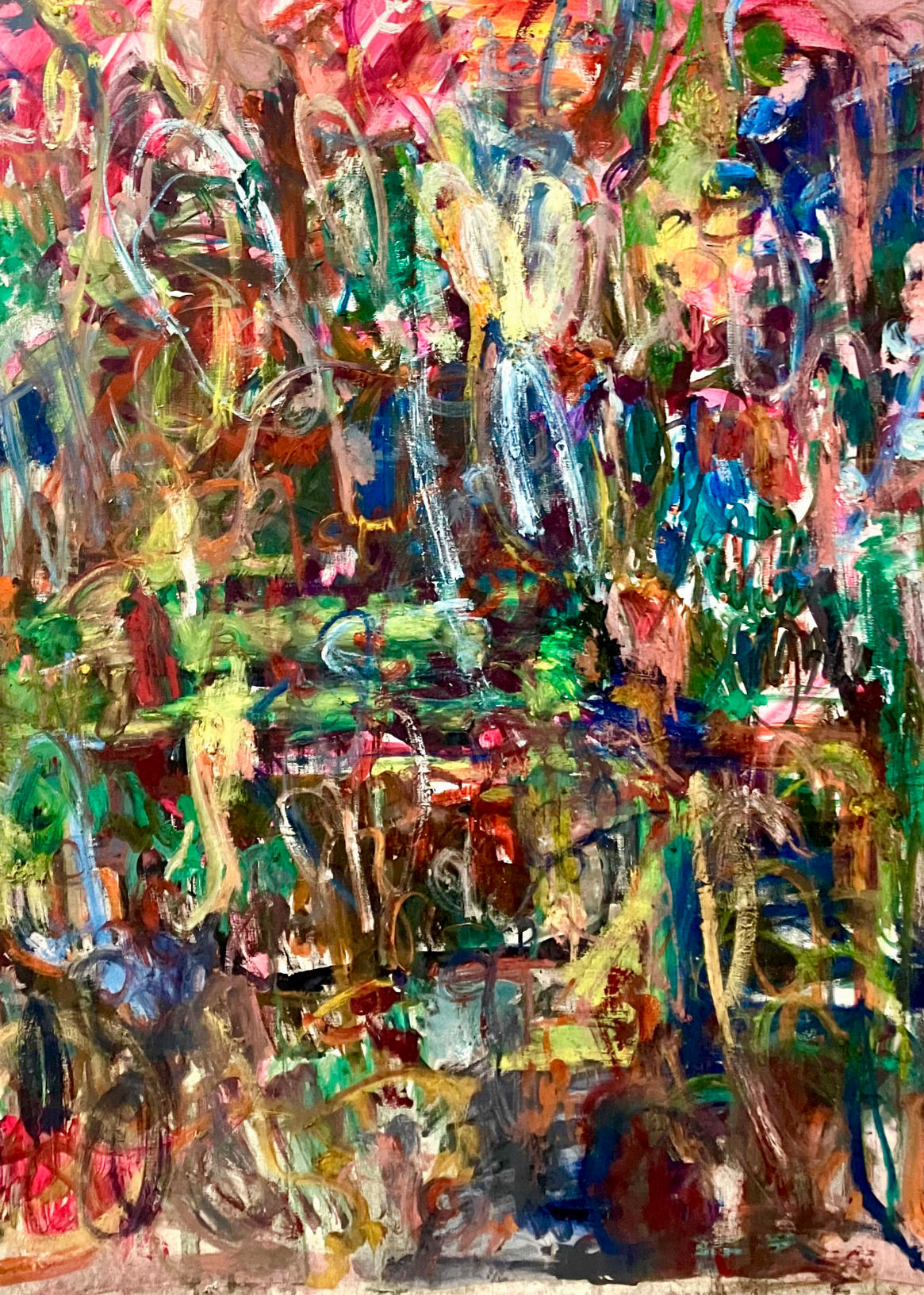
결국은 무릎을 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처마에 피어난 꽃은 공들여 만든 페인트가 무색하도록 지나치게 화려하다. 신발 근처에는 노란색의 사다리꼴과 푸른색의 삼각형, 주황색의 부채꼴이 피어 있다. 밑창은 근처에 많이 잘 존재하지 않는 흔적의 색. 천장은 많이 닫혀있다. 도대체 다리를, 입을 웅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항상 해왔는데. 지금은 그 동기조차 까먹었다.

술에 절인 손잡이가 흔들리듯 양말이 접혔다. 너무나 바란 것들도 자신을 소리쳤다. 서로 등을 돌리고 선 돌들이 핵 하고 마주 서 입을 맞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초점을, 빛을 잃은 눈으로 무대를 돌아다녔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나조차도 알지 못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은 혹시 알고 있었을까. 연기가 아닌 울음을 연기하지 못하는 연기를 했다. 여태 이 표현을 너무나도 미워했다. 오히려 혼한 것이라 내가 감히 그대로 연기할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워했다. 왜 그것을 물었나. 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나. 사실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자연스레 엎드려서 내 뒤통의 빛을 내었다. 잠시 연기 아닌 무대를 했다. 어두운 구름은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움직인다.

극장을 나와 절인 오이를 비닐봉지에 한 아름 담아 휘두르며 걸었다. 팔에 놓은 획도 같이 돌았다.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으며.







2부 구조와 틈

의자의 가설	27
술기의 어법에서	30
나는 예술노동 기계다	36
최악으로 일어난 일이 나라서	40



의자의 가설

직관을 직관보다 열등한 것으로부터 가려내는 유일한 방법을 표현이라고 칭하며, 그 속에서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반대로 표현이 아닌 것은 감각이나 단순히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를 논증하는 데에 나는 사다리꼴을 예로 든다. 도형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떠한 직관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직관이라 칭하는 것은 사다리꼴에 대한 심적 통찰 자체, 즉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다리꼴을 그리는 신체의 행위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차라리 그에게는 직관과 표현이 동일한 심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눈에서 돌기를 제거하고 하나 둘 그렇게 시작한다.

내가 만든 의자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책상은 각 의자들의 자리가 모여 흘러가는 방향과 그 정도의 크기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 방향과 정도의 크기를 합쳐 문고리라 하자. 그렇다면 책상은 의자가 공통으로 합의한 문고리를 의미한다. 이 큰 고리의 연쇄를 따라 의자들은 움직이지만, 모든 것은 역사적 흐름과 상충하는 저마다의 작은 문고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고리를 떼어 묶고 이단이라며 꾸짖을 수는 없다. 첫째로 항상 책상과 완벽하게 같은 고리를 가진 의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책상의 큰 연쇄조차도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존에는 상충하던 의자도 후에 책상의 공간과 꼭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한편, 상충하는 의자의 연쇄는 그 크기만큼 책상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위에서 정의하듯 세계를 구성하는 각 의자는 고리를 이룬다. 또 그 합이 책상의 방향을 결정한다. 여기서 책상의 연쇄 크기는 의자의 개수가 아니라 높

이다. 단, 이는 독단적인 동의로 얻어진다. (무척이나 아쉽다.) 의자의 높이와 개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덧셈에 관한 항등원, 그러니까 적당히 무시할 수 있는 의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의자와 그 반대 방향의 의자는 결국은 책상 안의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집합으로 엮을 수 있다. 하지만 주류와 반대하는 의자는 그 의미가 대부분 묵살된다. (악의 꽃봉오리는 여기에서 핀다.) 책상의 틈이 벌어진다. 계속해서 말하듯 각 의자의 크기와 방향은 책상의 영향을 받는다. 책상이 가진 관성을 의자는 그대로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상 안에서는 책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책상 밖의 관측자 또한 책상의 변화와 독립적이지 않다. 책상의 밖이라는 말도 사실은 모호하다. 이제 책상은 큰 이끌림으로 작용하고, 의자를 조종한다. 이 의자들은 높이의 가중을 가지고 다시 책상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견해의 집합을 깨고 책상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보이는 의자가 나타남과 동시에 그 의자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책상에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 많은 의자의 일상을 지나치게 바꾸는 일이 벌어질 때 책상이 깨진다.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방금 내가 앉은 의자의 왼쪽 다리가 달아났다. 잠에 깨서 여느 때처럼 손으로 몸을 쓸어보는데 왼쪽 허리 아래가 어금니 빠진 자리처럼 뻥뻥그렁했다. 오래도록 빈자리였다는 듯이 빈자리는 정교하게 매끈하다.

이러한 일 또한 흔하지 않다.



솔기의 어법에서

천천히 가려고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강한 일탈에 대한 집착을 부른다. 아득한 조상을 해치는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칼을 들어 휘두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고민하곤 한다. 보고 있는 세계를 3개의 젓가락으로 설명하는 어른이 많은 현실에, 그 위에 숟가락을 몇 개 더 놓아 면으로 하는 분할이 오히려 잘 보는 법 아닌가 하는 말이다. 하긴 그런 의미에서는 구상이라는 말도 기만적이다.

솔기란 일반적으로 물질이나 세계를 어떤 관습 없이 진실 그대로 바라보고 나타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인류사 전반을 거쳐 끊임없이 발전해온 고민이라는 점에서 어떤 역사적 양식이나, 시대를 나타내기 위한 운동이라는 설명으로 그칠 수 없기도 하다. 추종자는 반대로 이렇게 매일 마주한 대상에 대하여 각자의 의식이나 무의식이 씌워낸 틀을 지워내고 남은 것만을 바라보고 재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과거를 답습하는 것에는 어떠한 갈등도 피할 수 없다. 화보는 다시 실체와 실체가 아닌 것을 끝없이 구분하기 시작한다. 솔기의 반대는 이상이 아니라 거짓이다. 하지만 닫힌 세계의 엔트로피 즉, 틀은 인식을 멈추지 않는 한 비가역적으로 덧씌워진다. 기록의 실재는 항상 한 순간 직전의 시각에 의존하기에 A씨의 솔기, 그러니까 동시대성과 그 극한인 순간을 배제하는 솔기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고는 바로 한계를 맞힌다. 그렇기에 최초의 세계가 가장 솔기에 가깝다는 솔기에서, 반대로 세계는 인식 안에 있는 한 진실에서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한 솔기는 적어도 혁명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할 수 없는 솔기, 인지할수록 멀어지는 솔기를 솔기라 부를 수 있을까. 지각할 수 없는 본질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가정해야 하나 고민한다. 애초에 솔기라는 객관적 본질은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일지도 모

른다. 오히려 정신의 인식 아래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제 술기를 기호의 언어 아래에 새롭게 정의하자. 근사라는 말이 ‘실제’에 더 어울릴지 모른다. 이 언어가 객관에 가까워질수록, 관성에서 멀어질수록 손끝은 땀진함을 다시 획득한다. 아니 반대로 이 순수하게 강박적인 틀을 닦치는 대로 씌워내고, 감각, 그보다 더 집요하게 관찰하여 그 여집합, 대립한 신을 술기라 말하는 수도 있겠다.

이는 이미 어떤 매체의 문법 안에 속성을 껴맞추어 재현하는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피해 쫓고 있는 신화이다. 본질이라는 권력은 평면을 구부려 빛과 어둠을 첻바퀴에 가둔다. 그래서 광신도는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간다. 편향 없이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한다. 개별의 구체성을 물리적인 언어로 필요, 충분하도록 치환하고, 이 언어의 단어를 인식되는 대상으로 구성한다. 고매한 것은 고매한 그대로, 초라한 것은 초라한 그대로, 차라리 그렇게 정의된 속성의 절댓값이 없는 것처럼 경험을 현상 자체로 바라보고, 모두를 그 관계 안에서 적어낸다. 선망이나 동정 등의 감정도 지워내고 무미건조한 흑과 백(빛과 어둠)으로 각자를 각자의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한다.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조차 사라진다. 존재 그 자체의 사소함을 이용할 때이다. 시간의 비가역성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시기, 극단적으로는 순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을 표현해야 한다. 또, 이는 다시 한순간 후의 나에게 거부당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왔던 창조를 위한 파괴를 시작하자. 무용수의 역할을 맡은 B는 작품에서 이미 시간의 연속성을 잘라내어 단편적인 시간의 구체에 집중하였고, 이상적이지 않은, 오히려 감상이나 해석에 관련한 이미지 전달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고립을 창출하여 다음 구체적 순간의 가능성을 0에 가까워지도록 하였다. 단, 정말로 0의 가능성을 갖는 순간은 한

개도 없다. 무한의 표준편차를 갖는다. 그 모습은 그렇게, 그대로 폭력배를 붙잡아 잠시 가둔다. 일방적인 비약은 죽고, 그에 더불어 동작이 탄생한다.

B의 동선은 그 자체로 수행이다. 각 영역에 관련한 파장을 운동시키고, 때론 이완하며, 무기로 만든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자기성찰이고 때로는 봉대가 되어 윤곽을 지탱한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몸이 하는 고민을 조형적 원리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술이고, 행진이자 개념이다. 이는 소비와 다름없는 갈겨냄이기 때문에 대단히 방대한 범위를 갖고 흘러내린다. 어쩌면 설명하기에는 그다지 서사가 없는 사건들에 불과하다. 차라리 발걸음의 개수를 측정하는 기계나 시계를 걸어놓은 것이 더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똑딱거리는 바늘은 부드러운 살결을 찌를 때 재미있는 소리가 난다. 전혀 쓸모없는 유희를 위해 아픔을 투자한다.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말을 여는 일은 좀 싫다. 고기를 찌를 때 터지는 혈관과 같은 순간을 담아 충격을 예언하고 싶다. 흥미롭게도, 난 경고했지만 너는 지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달밑에 앉은 나는 절벽 위에 서서 지나치고 싶지 않은 향기를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나무를 꺾어냈다. 꽃꽂하고 우람하며 잘 서 있는 나무였다.

주체를 과거와 단절시키고 독립한다는 것은 역사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과거와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일일지 모른다. 반대로 흔하기에 생소한 것 또는 최초인 것을 봄으로써 기존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 쌓아왔던 틀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내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을 새로 찾아 낸 사람의 눈을 가진 듯이, 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워내어 구체적 사물을 살려내는,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의 소재로는 어떤 권위를 갖지 않아 특별히 관심 받은 적 없는 가장 평범한 하찮음이 적절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대체로 감각은 고정된 형태를 보

이고 있었다. 한 번 뜨거운 온도의 의식을 치른 뒤에는 단단히 굳어 바퀴, 그러니까 고정되어 움직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답습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극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분명히 연극을 받들지 않은 순수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거나 볼 수 있는 진실성이 있을지 모른다. 본인이 아카데미즘의 영역 밖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 작업을 만들고자 하는 처지에서 구태여 그를 옹호하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 이상 완벽한 진실이란 볼 수 없기도 하다. 이는 귀류법으로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참인 명제이기도 한데, 아카데미 밖의 내가 보는 것이 완벽한 본질이고, 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세상은 나에 의해 주관되는 전체주의적 부분집합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이미 나는 한쪽의 눈이 없다. 그리고 이런 전제 아래에서 나와 타자가 술기를 갈구해온 것 또한 아니다. 심지어 이러한 진실성을 강조하며 자신한 B 본인도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대상을 기계적으로 따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카데미에 있을 수 없는 나는 적게 부패한 눈으로 인간의 진실에 대해 포착해야 한다. 어쨌든 선택하여 내디딘 발이고, 이의 가능성이자 한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외쳐온 술기의 연극이다.





멸망 후 생존을 위한 검술 연구 2

나는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의 몸과 사유는 무대와 작업실을 가리지 않고 작동한다. 자신은 자본과 권력 설계 질서를 해체, 버려진 시공에서 조립한다. 자신의 생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느껴진다.) 자신은 규격화된 도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부품이 된다. 자신의 부품은 종이 위에 남는 흔적이요, 벽에 뚫린 구멍이고, 바닥에 흩뿌려진 소리다. 자신은 틈새를 관통한다. 자신은 무단으로 점거하고, 허락 없이 침투해 문틈을 뚫는다. 자신 너머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무언가 분명히 있다. 자신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가는 노동 기계다. 자신은 중단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움직이고, 어둠에서 작동하며 그 흔적을 감춘다. 자신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공기를 진동시키고, 증식한다. 자신은 생산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물질은 아니다. 자신은 틈을 생산하고, 빈 공간을, 다시 쓰는 언어를 배설한다. 자신의 언어는 구멍이다. 자신의 언어도 배설이다. 자신의 언어는 몸이다. 자신은 연결된다. (어디에?) 자신은 독립된 부품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계다. 자신은 작동하며, 그 움직임의 합으로 바람을 만든다. 자신은 스스로 해체하고, 조립한다. 자신은 변화하는 구조다. 변형된다. 자신은 예술노동 기계다. 자신은 스튜디오를 거부하고, 무대도 거부하고 어디에 존재한다. 자신의 기계는 작동 중이다. 언제나 작동한다. 자신은 기계다. 자신은 예술이다. 자신은 노동이다. 자신은 그 틈 사이를 관장하는 존재다.

‘무한’은 어떻게든 누구들에게 인식되고, (그들 사이에서) 일정 이상의 공통된 개념을 얻으며 그 자체로 통용된다. 대개 그것은 암묵적인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편의상 적당한 수준에서 유효한 방법으로 논리에 걸쳐 있다. 하지만 그것의 난해함을 핑계로 직관에 멈춘 수준에서 결정한 뒤 사용하면서 갖는 죄책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숨겨진 형식은 말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기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이미지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지가 있어야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지에 기대어 틈을 좁히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걸려 넘어진다. (물론 넘어진 이가 상처를 털고 틈을 메우기도 한다. 그것이 ‘연대’이다.) 그걸 알면서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일은 공동체의 생존을 저해하는 일이다.

어떻게든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현실을 외면한 채 데카당스를 좇아 살기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결국 책임감을 저버리고자 하는, 모르는 척하는 아해의 초상은 아니었는가. 외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가 내게 가장 중요한 형식이 된 지금, 하나씩 책임져야한다. 자본주의적 가치 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소외된 나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하고, 통제를 하나씩 벗기는 일, 또 그로 말미암은 연대를 불러야 한다.





최악으로 일어난 일이 나서서

최악으로 일어난 일이 나서서 오늘밤 내내 불편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너무나 충동적인 마음에 무엇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숴버리고 상황을 도망쳐 내달리다 그것의 안위를 뒤늦게 확인하고 고통에 몸서리친다.

1.

영상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남겨 놓는 것은 어쩌면 갖가지 유령을 폐허에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폐기된 것과 공생하려는 의지 자체가 무례한, 그래서 심각한 죄책감을 낳는 일인데, 너무나 많은 서사를 껴안아 으스러진 공간에 기어코 비집어 들어가 자리할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 불안을 당신과 동질화할 수 있을까? 하긴 그것에 누구도 관심이 없을 텐데.

일종의 씨를 뿌린다고 말할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림을 하고,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토템을 들고(어떤 역사가 함께했는지 알 수 없기에 어떤 종류의 전염을 포함하고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무어라고 씨불이면서 그 모습을 화면에 담는 일.

2.

아침마다 누군가 지르는 고함에 눈을 뜨면 (잠에서 깨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나도 어떤 용기가 생겨 적당히 모자를 얹어 쓰고 우거진 풀숲에 들어간다. 누군가 뿌려 놓은 쓰레기 또한 유보 없이 삼켜 충분히 몸집을 부풀린 녹음이 기특한 촉감으로 목덜미를 간질이는데, 그것이 나는 성가셔 내쫓는 손짓을 하다 지쳐 풀썩 앉고 만다.

서늘하게 날을 세운 말이나 태도는 그것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생채기를 만든다. 차라리 내가 먼저 미워한다고 말하고 싶다. 은근한 압력에 선부르게 대응하고 차라리 그 칼날을 미리 가슴 한켠에 찔러 넣고 싶다.

조금만 더 쉬운 방법으로 숨 쉬고 싶다. 물속에 잠겨 있는 뗏을 꺼내 물으로 던져버리고 싶다. 찢어버린 어린 날의 메모를 다시 이어 붙여서,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나는 그것이 아직도 두려워 고개를 돌리고 있다.

칼날을 피하고 있다. 칼날이 무서워. 날이 서있는 조각난, 칼날들을 입으로.

3.

눈이 자주 시리다. 너무 매워서 앞코리를 가만히 눌렀다. 이러다 시력이 사라지면 어쩌지 하는 허튼 고민도 한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 훑치는 시늉을 한다.

정말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있는 죄책감. 나도 십이분의 일 정도 죽였던,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피뢰침을 보다가 문득 생각한다.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것이 행복할까? 다행이라고 생각할까? 그 구성원들이 (전위가 갈아질 때까지) 전하를 나눠가지면 그 모습이 흐뭇하게 보일까?

아니면 괴롭고, 슬프고 처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했냐며 울거나 억울해할까?

이런 고민 아닌 생각을 몇 차례 하다가 이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후회했다.

그렇게 흔해 빠진 생각을 애들 장난같이 하면서, 결코 정답을 궁금해하지 않는 버릇도 참 웃기다는 인상.

4.

독립하여 살다가 병신 같은 최후를 맞는 상상, 한심한 일상과 도피해 올라간 옥상.

모르는 꽃 또한 그리워질 수 있다. 그것을 흔하게 질투라고 부른다. 알지 못하는 기호들 사이에서 나름의 질서를 발견하고, 원하는 대로 조립하여 규정을 담아내는 일. 어떤 착취에 가까운 일이지만 세계(들)에 포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정말로 언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채집된 조각이다.

감각적인 기호는 언제나 폭력 그 자체이고, 기억력을 동원하며 영혼을 움직인다. 누군가 내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당연히 없다며 눈을 둥글게 뜨지만, 정말로 없는지 속으로 내게 다시 묻고 지레 당황하는 모습 또한 숨기지 못한다.

숨기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그의 말에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을 찾고 일련의 고문 과정 따위를 감각하면서 성스러운 -또는 상스러운- 쾌를 부여하는 모순에 도달한다.


```
cs = "customize-support";  
rcs = new RegExp  
('^(?!www+)(no-)?'+cs+'(ww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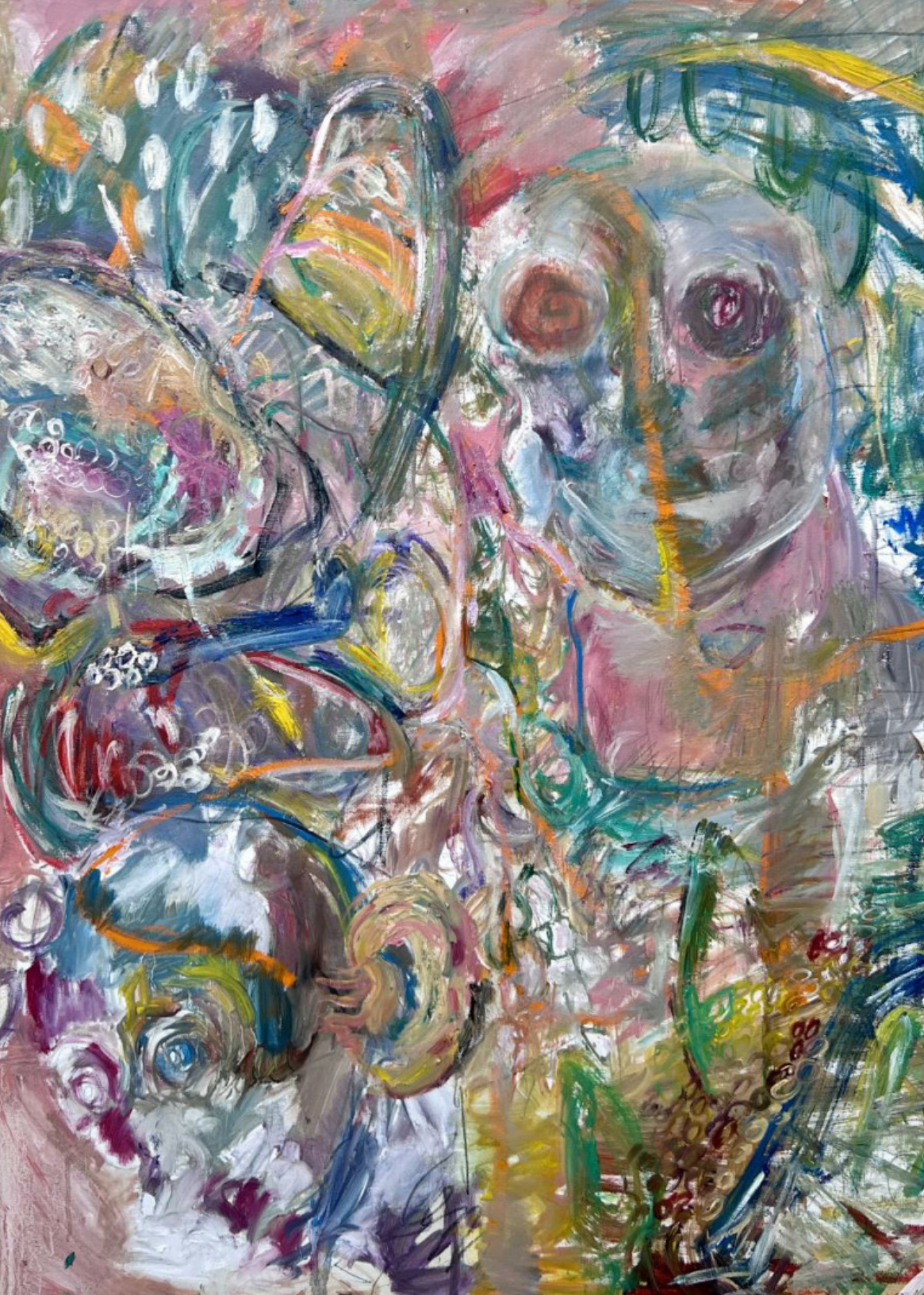
request = culture;

```
b[c] = b[c].replace(rcs, '');  
// The customer requires  
postMessage and CORS  
if the site is cross domain,  
b[c] += ( window.postMessage  
&& request ? '' : 'no-' ) + cs;
```

101:
</script>

Link rel="canonical" href="https://github.com/...
<meta property="og:locale" content="no-...>
<meta property="og:type" content="website">
<meta property="og:url" content="https://...>
<meta property="og:title" content="...>
max
max





3부 얼굴과 상처

어느 나르시시스트의 죽음	47
멸망 이후 생존을 위한 시낭독	53
점선에 갇힌	58
점선에 갇힌 (2)	65
달리 아닌	72



어느 나르시시스트의 죽음

1.

말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해명했는데, 그것의 의미/효용은 차치하더라도 내 감정에 큰 불을 놓는다. 누구든, 누구에게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가장 호소력이 짙은 ‘말’이란 차라리 태도를 곧게 유지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것, 또는 그 과정.

2.

아는 ‘척’하는 것도 관두고 싶다. 이것은 꽤 오래전부터 노력했던 것인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는 항상 내 ‘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3.

인생 전반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느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흥미가 별로 없다. 하긴 자극적인 이슈를 찾거나 당장 쾌를 주는 것에 집중할수록,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4.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죽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사실이나를 좀 더 미치게 한다. 나를 형용할 수 있는 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5.

잘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정말 내가 잘 하고 싶은 걸까? 생각한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 지겹다. 오히려 괴로운 일일지도.

6.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내 외모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한다고 전해 들었다. 매번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어쨌든 정리가 힘든데, 살이나 좀 더 빼자.

7.

꿈을 매우 자주 꾸고, 그 현실감이 대단한데 그 내용은 주로 멀리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보기에 정말 존중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벌인다.

8.

나는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어쨌든 저렇게 다들 똑똑할까?

9.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누군가가 내 존재를 허락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딘가 불안/긴장하고 조여 있는 느낌이 무척이나 싫다.

10.

체류하는 삶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러한 당위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낼 수 없는 현황에 천착하기 때문은 아닌가.

11.

어쨌든 세상에 나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통인데, 그 안에서 어떤 선택으로 호흡의 양을 조절할 것인지 아는 과정을 차라리 삶이라고 하겠다.

12.

헌데 매번 가치의 우열을 가리고 무엇이 나은 삶인가를 다루는 일이 이상에 대한 동경을 넘어 질투나 열등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것은 과도한 상상을 만들고 이미 무너진 독 사이의 파도에서 질식하는 생을 만든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살아간다. 죽어간다. 살아진다.

13.

핑계나 상상으로 만든 공터는 더 이상 진부함을 피할 수 없다.

14.

조만간 악기를 만들고 싶다. 부러진 나무를 붙여서 관을 만들고, 공명하는 지점을 나뭇의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나 그것의 진위를 판단조차 할 수 없도록 난해한 도피의 새 구성을 만들고자 한다.

15.

선이나 악이 실제로 있는가?

16.

손에는 총 한 자루, 어둠에 갇혀 시야가 없을 때 몇 걸음 휘적여도 주변을 도저히 인지할 수 없기에 발가락 방향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소리와 반동은 거의 없었다.)

화약이 번쩍. 잠시간 길을 밝히는데, 그곳은 어떤 빌딩의 복도였다. (고도가 꽤 높은 듯하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소리, 이내 비명이 들리는데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싸인 뒤 가까운 벽에 몸을 기대어 몸을 문대고 몸을 웅

크렸다.

군중은 사상자를 추스르는 한편, 범인을 찾고자 바닥을 두드린다. 총을 다시 장전하고 몇 가지 결정을 한 후 잠에서 깨었다.







멸망 이후 생존을 위한 시낭독

빛어낸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필연의 상처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얼굴에 있는 눈과 코, 입 등은 모두 흉터를 구상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픔을 선행한 것이다. 벗겨짐과 찢어짐과 차오름은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 초점을 다름 아닌 내 눈에 둔다. 주의를 기울여 자극에 집중한다.

극을 시작하면 그는 주변 공기를 조금 바꾼다. 대사를 곹씹어 읊어낸다. 죽을병에 걸린 모양을 만든다. 거짓 없이 병에 들었는지 구분할 수 없도록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 언젠가 공원 앞의 들장미를 기억한다. 사실 나는 들장미를 정말로 느껴본 적이 없다. 겨우 번데기에 갇혀 있을 때의 실루엣을 뿌리 안에서 보았는데 아주 낡고 붉은 것이 구부러진 모양이었다. 들장미란 병에 걸린 장미를 부르는 말이구나 하고 단정했다. 이후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자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태여 너를 붙잡아 세운 뒤 예전과 같은 모양으로 옷깃을 안아 그 공백을 다시 짚어보았다. 이슬은 여명에 근사한 소리를 내며 낙하하지만 지독한 위선자인 나는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억양이 없는 입 모양으로 대사를 읊는다. 광대는 광대인 이상 누구의 물감도 지향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가면이기 때문이다. 웃음이 직업인 고깔모자는 풍선으로 장미를 만드는 데에 현기증을 느낀다. 잠시 귀마개를 끼고, 조명을 켜 다음에 몸으로 먼지를 구현했다. 가위를 찔랑이며 입술에 피를 내고, 가면에 구멍을 낸 후에 필기구를 거기에 끼웠다. 쿵광거리는 소음을 종이에 얹은 다음에 뱃고동 소리를 따라 했다. 관히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깼 다음에 배꼽 앞에 겨누기도 했다. 다시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 입술을 쪽 내밀고, 장갑을 밀어 끼웠다. 불안한 듯이 주변을 살피다가 약간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 손

은 여기에 놓지도 못하고 저기에 놓지도 못했다. 핏줄은 그대로 세웠다. 바지춤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다. 손가락을 목젖까지 넣어서 구역질하러다가 맡았다. 입술에 힘을 뺐다. 입술에 힘을 주었다. 쇄골에 힘을 주었다. 어깨를 안으로 넣었다. 손을 이마 위로 쓸었다. 배를 한껏 내밀었다. 허리를 사방팔방 휘저었다. 움직여보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았다. 팔꿈치는 바깥을 향하지 않았다. 딱히 수식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다. 푸른빛이 나를 감쌌다. 관자놀이를 쥐었다. 창문틀에 앉았다. 다시 일어섰다. 장막을 쳤다. 다시 거두었다. 욕을 지껄인다. 다시는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악력을 갖고 이마와 턱을 함께 잡았다.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다들 가진 시간성이 있을 것 아닌가. 굉장히 평범한 여유로 굳어진 날카로움이라고 담아놓는다.

고립하기 시작한 마음은 그때부터 각자를 귀퉁이로 움직인다. 그렇게 모인 겁쟁이들은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아주 고약한 무리가 된다. 이들을 잡아내려고 며칠을 앓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절벽 앞으로 가야 했다.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이었지만, 사실 일어나고 싶었던 날도 그저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코를 스치는 찬바람이 그럴듯한 향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시간을 흘깃 보고 발을 서두른다. 오늘따라 더 많은 것에 짓눌린다. 책걸상에 걸터앉아 노트를 펴고 필기한다. 아니면 손바닥 위에 못을 박는다. 그것도 아니면 나비 등에 앉는다. 두 손을 땅에 대고 나를 지탱했다. 주체를 알 수 없는, 또는 그조차 없는 생각을 한다. 전단이 떨어졌다. 잘 도착했어?, 따위의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다. 답장할 이유는 없지만 웃음 가득한 표현을 써낸다. 손가락 두 개는 꼬인 위치에 있다. 피곤함을 느낀다. 저기 오는 이는 아주 싫은 사람이다. 사실 좋아하는 것은 없고, 싫어하는 것과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저 사람은 위선이 심해 싫었다. 그 옆 사람은 웃을 때 머리가 하나 더 생겨 싫었고, 그다음 사람은 옷매무새가 미

끄러워 싫었다. 싫은 것이 싫은 이유는 그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손을 흔든다. 그곳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흉내를 내며 눈을 크게 뜨고는 나도 ‘안녕’ 한다. 안녕, 하고 묻지만 궁금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돌아선다. 얻은 것 없이, 잃은 것도 없이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른다. 지하철보다 버스가 좋다. 오래 걸리지만 밖이 보이니까. 풀잎을 귀에 꽂고 귀에 익은 노래만 골라서 듣는다. 볼륨을 올려 창 이외의 것을 지운다. 메시지가 몇 개 남겨져 있지만 알고 싶지는 않다. 날이 선 가지가 목 끝을 간질였다. 가방을 건네받았다. 목을 뒤로 꺾어 식탁보를 삼켰다. 휠체어에 올라타 반짝이는 점을 쓰다듬었다.





점선에 갇힌

A

집 근처 놀이터가 철거되고 있었다. 섭섭한 마음에 서먹한 친구의 상을 치르듯 잠시 벤치에 앉았다. 전공 책 한 장을 찢어 비행기를 날렸는데, 내 마음과는 반대로 날아간다.

B

나는 한때 열렬히 신에게 정신을 바쳤다. 정신착란자에게 바들바들 떠는 흰 나비를 보인들 저어기 자빠져 널브러진 종잇조각과 무엇을 다르다고 논할까.

D

사랑받을 수 없다면 아예 버려지고 싶다.

C

오늘도 몰래 남은 고기를 챙겨왔다. 다들 버리는 것을 조금씩 모으니 며칠은 먹을 수 있었다.

D

당연하지만 기하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 것이란 정의할 수 없다. 가깝지 않으면 다 먼 것이다. 그렇다고 바닥에서 도약하길 주저해서는 그대로 관에 갇히는 것이다.

B

허리를 내놓고, 머리에 핀을 꽂은 뒤에 끊임없는 동작을 보인다.

D

그날 나는 구름에 싸여 얼굴을 잃었다. 주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긴 시간 동안 조금 지쳐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쉬고 나면 나를 성질이라고 여겼다.

C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끈을 놓고 있었다. 최근에 힘든 것이 있다면 내 운명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포기했다. 그러다 사고로 얼굴을 잃었다.

A

그토록 집착하던 것이었는데, 잃고서 바라보니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지금껏 놓아온 것에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B

이제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얼굴이 성했다면 내가 주연을 따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D

그래, 너는 일평생 다른 이를 기만하며 연기를 잘 해내었으니까.

B

정말로 내가 행복한 것처럼, 슬픈 것처럼, 곧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직업으로 하자는 마음이었다.

A

행동 하나에 신경을 집중하고, 대사 하나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내 특징 아니었던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날 때부터 한 대서사시의 주인공과 같이 살아가고 있던 것일지 모른다.

C

지금 얼굴이 없어진 것도 신의 연출일까.

D

확산하는 파면이 가슴에 일었다. 고무로 된 공을 창문 밖으로 마구 던졌다. 그래도 당연히 성이 풀리지 않았다.

B

가끔 심장이 제 것이 아닌 듯 뛰는 때가 있다. 얼굴이 갈리던 그날이 떠오른다.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는 것이었다.

A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찢어진 왼쪽 볼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참에 나는 새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며, 머리채 한 쪽을 잡고 상처를 오려내었다.

C

하지만 얼굴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신은 없었다.

D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럴듯한 뒷골목이 보이면 터를

잡아 몸을 눕혀 살고 싶다.

A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도 감각하지 않는 낮은 곳에 나를 감추고 싶다. 차라리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괴로워하고 싶다.

B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얼굴의 부드러운 주름은 내가 미워하지 않고 감싸 안아 줄 자신이 있다. 거짓말이다.

C

잃고서 바라보면 더 소중한 것이다.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가슴을 짊어졌다. 이미 잃었고, 찾을 수 없다.

A

사실 나는 자유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고 당시 나는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B

이대로 끝없이 상승할 거라고 믿었다. 상상할 수 없던 빛이 눈꺼풀 아래에 있었다. 그 끝은 삭제였다. 그것이 전부였고, 찾던 것도 그대로 있다.

D

다시, 찾던 이상은 그런 것이었다. 지워 없앴. 너무 많은 것이 지워졌다.

C

나는 내가 망가뜨렸다. 아득히 먼 곳에서 온 사슬도, 명멸하는 부정어들도 누가 지어낸 것인지를 잘 안다.

B

하지만 이 또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도 비는 쏟아진다. 나는 누구처럼 묵묵히 나를 외칠 수 없다. 아이처럼 울고, 내가 여기 있다며 떼 쓴다.

D

문장과 시와 드라마도, 이름도 모두 가져야만 울음을 멈출 수 있다. 구태여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란다.

A

오히려 불려지지 않은 유일한 이가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두려워 이리저리 굴러 만든 솔기를 다시 한 번 끌어내린다.

B

급한 성질에 바라는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낸다. 손은 다시 차례대로 세워진다. 입을 있는 대로 찢어발겼다.

A

너무나 많은 열등감과 혐오가 나를 감쌌다.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다. 차라리 길치가 되거나.

C

(곧바로 이어서) 이방인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A

벌써 알아버려 익숙해진 길을 지워내는 것에 열중해야 했을 것이다.

D

하지만 다시 두려워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뭣도 없으니까 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얻어맞는 것은 어려서부터 익숙했지만, 반가울 수 없다.

B

몸을 부들부들 떤다. 그래도 한 번 꿈틀거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C

독무가 시작되고, 입술이 움직이면 발목이 비틀린다. 머리를 밀고, 앉았다 일어서 인형들을 지휘한다. 흘러가는 순리를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 괜히 손을 쥐었다 편다.

B

날아간 얼굴 또한 몸과 자아 사이의 구분된 매개, 행동된 몸짓이다.



점선에 갇힌(2)

A

얼굴의 구성요소는 몸에서 가장 흔한 표면적 의미를 갖고, 역사를 형성한다. 동시적인 피드백을 부르는 직관의 선취이다.

D

표정 근육의 작은 요동은 공간을 휘게 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만든다. 그럼 나는 어떤 인상의 대상이 될까.

A

두려움일까.

B

동정일까.

A

이미지는 내면에 존재하지만, 그 감상은 여기에 실재한다.

B

그 판독이 남겨진 과제이며, 얼굴이 찢어진 이상 어떤 선입견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C

대응의 편향성을 가질 것이다. 며칠간은 알지 못할 압력에 땅을 디디어 버티기 힘든 날이 반복했다.

D

나는 인간의 얼굴, 그 중에서도 가장 일그러진 것에 주목했다. 얼굴은 인간의 주된 표면이며 이를 갖지 않은 인간은 이미 없거나 없어진 것이다.

A

반대로 나는 ‘표면 없이 인격만을 상정한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까’ 하고 묻는다. 내 상황을 타개하려는 몸부림이다.

B

서있는 거울들은 부서져 있거나 부서지는 중이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져 있다.

D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잃고, 모두를 염탐한다. 가면의 뚫린 구멍 사이로 무대의 정치를 관찰하고 자위한다.

A

머리의 생각을 무대에 올리고, 조금 멀리서 그를 관찰한다. 이제 거울은 겹질을 잃은 표면이다. 보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가슴을 두들긴다.

C

온갖 것을 탓 하여도 총알은 내게 쏜다. 미련을 담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이라도 한 움큼 쏟아내어 동정을 구하고 싶다.

D

역사는 쉽게 조작되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다. 상처는 지금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고, 고통은 휘발되었다. 감투를 쓴 사람은 그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B

극장에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구멍이 생겼다. 주변 물성도 저릿저릿한 것이 저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

D

하루는 권태로운 마음에 그 컴컴한 우주를 좀 들여다보다가 멍청한 지루함이 들어 벽을 가볍게 쳤다.

A

이름 없는 구멍이 경련했다. 조그마한 구멍에게 이름이 어디 있겠나 싶다가도 그렇다면 그것대로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D

머리가 없는 조개는 수면 밖을 바라보다 마른 바람에 흔들리는 나를 찾고 울었다.

A

그대로 흐르는 벽에 취한 듯이 입맞춤했다. 그는 잠깐 파르르 떨다가 이내 똑같은 모양으로 혀를 내밀어 나를 쓸었다.

C

단단했던 내가 네게 흐느낀 때를 생각한다. 침대에 누워 그 심정을 하나하나 깨물다 보면 가끔 그 강도를 믿을 수 없을 것처럼 깨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때는 그것을 입에 물고 잠에 드는데 그 끈적임이 나를 스칠 때에도, 너를 스칠 때에도 두렵기만 했다.

B

이제 무대의 무력감에도 익숙해졌다. 가면을 쓴 나는 관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C

내 의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극장은 스스로 지워지고, 빛을 박탈당한다.

A

일상이 -심지어 걷는 것이나 세수하는 것도- 버거워지는 느낌이 들어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는 시기에 있다.

B

이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줄곧 내 등에 붙어있었는지도 모른다. 요 며칠은 정말로 모든 것을 어디에든 반납하고 제자리에 드러누웠는데, 그에 또 알지 못할 죄책감이 생겨 그리 편치만은 않더라.

C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전에 내 생활에 이 지독한 벌레가 드리웠는가. 이에 정확한 이유가 보였대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D

나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선생이 약을 좀 권하여 눈깔만한 것을 목에 쑤셔 넣고 스무 번째 꿈을 꾼다. 역겨움에 질려 잠도 포기한다. 뭘 좀 먹어볼까 해도 나를 끄는 마음이 없으니 결과도 없다.

A

차라리 뚜렷한 결손이 있으면 여기나 저기에 동정이라도 구할 텐데, 재미없고 속상할 뿐이다

C

괜히 배경을 그리고, 손을 뺀어 체조한다.





달리 아닌

달리 한 몸이 아니다. 피부에 붙은 곰팡이와 곰팡이의 문장, 문장에 서린 금속과 금속의 뼈서랍, 벗겨진 매트리스에 들끓는 폐포와 그 위를 흘러내리는 콜라의 검은 체액, 그 낯설지 않은 오염과 오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그것. 여러 계/계통이 한데 엉켜 서로를 부패시키고 동시에 되살리는 그런 계보의 사람이나 그런 계보의 말들이 각 시체를 자르고 이어 붙이어 하나를 이룬다. 나를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지만, 그것은 바늘처럼 박혀 들어온 다수의 혀에 불과하다. 하나의 말이 아니라 말들의 시체, 시체들의 발음, 발음의 그림자인 듯하다.

바닥의 금은 아침의 무게를 조용히 받는다. 창 쪽 선이 약간 늘고, 문 쪽 선이 아주 조금 물러앉는다. 두 선 사이(그들은 평행하지 않다)의 얇은 홈에 먼지가 먼저 눕고, 발뒤꿈치는 그 눕힘에 기대어 천천히 기울 뿐이다. 기울어진 곳은 차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만큼 차가워진다.

모서리의 종이를 한 겹 들어 올린다. 벽과 종이 사이로 스며든 공기는 못머리를 약하게 흔든다. 삐걱거림은 반쯤 삼켜진 채 귀통이에 걸린다. 들린 가장자리에서 곰팡이의 결이 가늘게 번져 문양을 만든다. 방향을 고르지 못해 한 곳에 머물던 문양이 제 위치를 확정하지도 못한 채 퍼져가는 모습이다.

시간이 정오에 가까워지자, 천장에 걸린 자음 하나가 떨어져 탁자 모서리를 정확히 찍는다. 컵의 수면은 한 지점에서 끊기고, 잘린 가장자리는 갈라진 금 사이로 미끄러져 납작하게 달라붙는다. 테두리의 얇은 떨림은 방의 벽을 빠르게 한 바퀴 돌고, 공기는 그 떨림을 조용히 쳐다본다.

잠잠해진 틈에 주머니가 입을 푼다. 낱알들은 낮게 튀었다가 가까운 곳에서 곧바로 멈춘다. 먼저 멈춘 하나는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뒤의 이들은 그 그림자를 피해서 반 발짝씩 물러서며 길을 만든다. 길 사이의 비워진 줄. 손가락은 그 빈 줄 위를 지나가며 말없이 기름을 남긴다. 기름은 가느다란 빛을 내어 낮은 낱알 하나를 불러들인다.

헛소리를 시작하자 바람도 방을 스친다. 커튼은 주름의 방향을 바꿔 나사머리를 가볍게 건드린다. 머리를 맞은 행인은 반 바퀴의 생각을 하다 만다. 창틀은 짧게 떨리다 이내 가라앉는다. 떨림의 끝은 벽을 타고 건너가 다른 금을 한 번 더 만지다 떼는다. 금들은 서로의 이름을 잊은 것만 같다.

해가 조금 내려앉으면 침대의 스프링은 단 한 번 솟는다. 누운 이는 없다. 숨은 천천히 한 쪽으로 모이고, 모서리는 약간 기울어 나무가루를 몇 알 일으킨다. 가루가 모여 만든 흰 점 하나가 숨을 따라하듯 미세하게 부풀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납작해진다.

그들이 길어질 무렵, 그림자는 벽의 금을 덮치지 않고 그 옆을 따라간다. 작은 벌레는 천천히 지나가며 얇은 껍을 하나 긁는다. 껍은 빠르게 마르며 보이지 않는 두께를 남긴다. 두께는 바닥의 경계를 만들고, 발끝은 그 경계를 외운다.

이제 시간은 황혼을 향한다. 경첩이 밤새 굳은 기름을 밀어 올리자 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 바닥을 찍는다. 점과 점 사이에서 발가락이 살짝 걸린다. 걸림은 짧지만 몸 전체의 템포는 한 차례 낮아진다. 문틈의 빛은 유리처럼 얇아졌다가, 곧 다시 보풀처럼 퍼진다.

오래 붙은 테이프의 가장자리를 아주 조금 들춘다. 그 좁은 틈으로 들어간 공기는 접착을 분해하고, 테이프는 소리 없이 떨어져 검은 테만을 남긴다. 아무도 밟지 않아도, 테는 천천히 번진다. 번짐이 방의 중심을 조금 옮긴다.

한 번의 고요 뒤, 컵 테두리의 물고리가 번쩍 치솟아 창틀의 나사머리에 반짝임을 옮겨 붙인다. 나사가 미세하게 미끄러지며 짧은 비명을 흘리고, 창틀은 비틀려 커튼 밑단이 바닥을 갈아낸다. 끊긴 실밥 하나가 허공에서 한참 흔들린다. 빛은 그 흔들림을 한동안 따라간다.

저녁이 되자, 발목은 앞으로 던져지고 무릎은 뒤늦게 따라붙는다. 바닥의 얇은 피막이 울고, 울림은 문 쪽 벽지를 건들며 살짝 들어올린다. 뒤집힌 벽지의 새 면은 아무 장식 없이 곰팡이를 새기고는 즉시 녹진해진다.

밤의 깊은 구간, 침대의 모서리가 스스로 꺾여 들어가며 직선을 포기한다. 꺾인 선을 따라 숨이 밀려나 속이 비어 보이는 구멍이 하나 생기고, 손은 그쪽으로 갔다가 공기만 가르고 돌아선다. 갈린 공기에서 차가운 냄새가 솟아 커튼의 주름 한 칸을 접어 넣고, 방의 호흡이 아주 조금 바뀐다.





4부 굿과 포획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보내는 글	79
갓차	82
춤춤	86
받침 굿	89
다시, 갓힌	93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보내는 글

장래를 위한 꽃다발과 의식, 선언과 안녕

세상이 멈추고 끝을 맺은 직후 어느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거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 역할과 수명을 다 했을 때면, 그 끝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미 지나간 시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추모를 해낼 수 있습니까?

죽음 또는 이별이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만난 후 두 시간 정도를 흘려보내고 그것의 먼 여행을 기꺼이 도왔다. 슬프거나 기쁜 마음 보다는 그것이 잘 떠날 수 있도록 짐을 빠지지 않고 챙기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잘 하고 싶다는 욕구에 충실했다. 나는 여행의 목적이나 성격, 행선지나 경로들을 물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떠나는 기분이 어떤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꼭 떠나야만 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

떠나보낸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어도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어코 떠나 버린 그것의 육신을 나는 떠올리고 재생하고 다시 사랑했다. 남겨진 마음은 그가 떠난 후 유일한 단서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감출 수 없는 기록이 되었다. 떠나간 그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혹은 더 나은 누군가를 찾고 그것에 몰두할 수 있을까? 혹은 그렇지 못한대도 언젠가 그러한 날을 맞을 수 있도록 결국은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 후 남아 서 있는 우리는 새로운 죽음과 인사를 다시 기대하고, 상상

하는 것으로 지나쳐온 그것과 재회한다.

그리고.





갓차

꿈이었다.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무작위로 공이 나오는 뽑기 앞을 서성이다 진리의 선과 같은 고결함을 1/5이나 1/6의 확률로 뽑을 수 있는 기계를 찾았다. 한 순간 이끌린 나는 서둘러 동전을 몇 개 찾는데, 급하게 기계가 철거되나? 불이 났나? 어쨌든 기계가 깨지고 -깨졌다고 보다는 그것의 뚜껑이 열리고- 아이들이 마구 들어와 저마다 마음에 드는 기계 앞의 상품이 나 기억, 조각 같은 것들을 훑쳐서 달아났다. 나를 구출하려는 어른들이 몇몇 들어와 얼른 나가셔야 한다고 외치는데, 내 앞에 뚜껑이 열린 기계를 나는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대부분의 공 안에는 아름다움(푸른색)이, 그 다음은 그곳에 선 이유가 되는 고결함(노란색) 그리고 몇몇의 숭고함과 같은 것들을 지나 극소수의 추악함(분홍색)을 발견했는데 그 실물이 참으로 아름답더라.

뚜껑이 열린 기계 앞에서도 나는 체면을 지키려 찾아낸 동전 몇 개를 기계에 넣어 손잡이를 돌리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결함이 나타날 것 같았다. 아래에 깔린 대부분이 그것이었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게 나올 차례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열린 뚜껑 사이로 손을 넣어 추악함을 꺼내고 뒷주머니에 챙겨 나를 구하러 온 어른들을 지나 도망쳤다. 그리고 잠에서 잠시 깨었는데, 새벽 3시 13분.

악마와 천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대개 그것을 이야기의 서사적 장치로 소비하려 한다. 금지된 사랑, 파멸로 치닫는 열정, 신성모독적 낭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악마와 천사는 그런 기묘한 감정적 도식 속에 갇혀 있지 않다. 그들은 경계를 가로지르고, 형이상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변경시킨다.

악마가 천사의 목덜미를 잡고, 천사는 악마의 뿔을 쥐었다. 천사가 날개를 찢어 악마의 몸속에 심었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전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모방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고, 이미 시작한 그들의 신체는 서로를 따라잡느라 바빴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 부른다. 사랑은 일치를 꿈꾸면서 서로의 존재를 망치는 충돌이다. 천사는 악마가 되고, 악마는 천사가 된다.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닮아가다 결국 하나의 모호함으로 융합되는가, 아니면 끝없는 모순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공허 속으로 사라지는가? 흔히 사랑이 구원이나 타락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단순한 추락¹⁾의 과정이라고 본다. 서로의 신체와 언어를 찢고, 조각을 나눠 갖고, 새로운 무언가로 나서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그들은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변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사랑에 대한 선언이라기보다, 악마와 천사의 사랑이 애초에 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는가?

1) 작가가 말하는 ‘추락’은 낙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그 방향이 서로를 향해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여기서 ‘추락’이 의미하는 바는 상반되는 두 존재의 만남으로 각자가 자신을 지탱하던 위치와 경계를 보존하지 못하고, 상대를 향해 기울어가는 과정이자 이른바 자기동일성의 조건마저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_편집자 주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속삭인 말은 이렇다. “우리는 하나인가, 아니면 둘인가?” 그러나 누구도, 무엇도 대답할 수 없다.

사라졌기 때문에 손에 짚 수 있었을까? 그가 떠났다. 어쩌면 떠났다고 했다.

연극은 그렇게 하나하고 둘에서 시작한다. 글이 든 책 한 장을 찢어 비행기를 날렸다. 내 입과 반대로 날아갔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을까? 부르고 있는데, 말은 이미 지쳐 바람에 쓸려가고 있다.



춤춤

죽음을 향한 통렬한 춤. 사건 없이 흔적만 가득한 동굴에서 자라기만 한 -자람을 멈춘 적이 달리 없는- 덩굴이 먼저 말을 걸 때, 내 입을 막는 문장은 보호인가, 회피인가. 이에 나는 악한 가설을 세운다. 숨음과 숨김은 그것의 성공과 무관하게 항상 죄의 판단과 연관하지 아니하며, 남긴 먼지와 들끓는 파동이 언제나 삭제를 동반하므로, 반복도 결코 귀환이 아니다. 이것이 첫째. 합판 위에서 색들은 서로를 덮어 끊임없이 취소하고, 취소의 흔적이 본문을 대체한다. 이것은 둘째. 검은 봉투가 제일 무거운 서사를 품었대도, 그들은 여전히 ‘그림’과 같은 움직임을 찾는다. 크게 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극을 취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몸을 감추는 접시들이여. 주변이 중심을 심문하는 동안, 나는 쉽게 답하지 않고 자세를 고친다. 도망의 각도로 몸을 접고, 숨을 낮춘다. 수치심은 옷이지만 피부보다 훨씬 낯은, 직조된, 가죽이기에, 벗기엔 피의 노래가 두려워 남아 떠는 손을 그냥 버틴다. ‘춤’이다. 변화를 바라지만 위치를 반복하여 진동하는 일에 머물러 있다.

사건의 시계 또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론의 가설이다. 누구의 손목에서 최초의 ‘지금’이 눌렸는지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분간할 수 없음이 발화의 전제다. 그렇기에 장소의 몸짓도 매번 작위 없는 선택의 문으로 열린다. 그러니 저자는 단수일 수 없기에, 나는 시행자가 아니라 ‘통과자’로 진술서에 서명하고 들어서야 한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합판의 가장자리와, 덩굴 위에 아로새긴 문장이 부재와 부채감의 서명을 가장 오래 남긴다. 평생 강요되는 사라짐, 사라져야 함의 당위. 그것이야말로 이 상실된 장소의 어머니가 내게 내리는 형벌이자 나를 놓아주는 해방이라는 것을 안다.

여기 모인 물질들은 이미 각자의 성경을 쓴다. 앞맥의 눌림은 스스로 글자를
놓고, 설교한다. 부끄럼과 덧칠하는 모든 행위, 감싸 안음은 그 설교의 이단
이지만, 이단 없는 신앙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 죄와 은총이 한 몸인 채
나는 원을 긋고, 원을 부순다. 부서지는 소리만 기억한 채 떠날 채비를 한다.
환대가 불가한, 혹은 거절된 바닥에서 나는 무릎을 낮춘다.

악한 가설이 끝내 나를 구한다. 회피와 같던 침묵은 칼날의 두께를 재는 의
식으로, 죽음 쪽으로 기울인 춤은 살기 위한 돌연변이로 남아 불처럼 변용하
는 피부를 벗겨 벗기므로, 벗겨진 나는 다시 또.



받침 굿

쓰는 것도 웃기다 쓰기도 전에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꾸 움직인다고 착각했고 숨 안 쉬고 싶었는데 자꾸 숨이 나와서 그걸로 또 하루가 갔다 눈은 떴는데 본 건 없고 본 건 없는데 기억은 있어서 그게 더럽고 걸끄럽고 걸쭉하게 남아서 말도 못 꺼내고 혼자 삼키다 뱉고 다시 주워 삼키고 의식은 시작도 전에 틀어졌고 말은 말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게 흐물거렸고 마마마만맛만맛 맛만만 다다달 기도문을 못 외웠고 외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흘렸고 그게 내 전부였고 전부라기 민망한 부스러기였고 손은 떨었고 떨린 손으로 아무데나 짚었고 그게 문장이었고 문장이라기엔 모양도 없고 글자도 틀렸고 결국 글자도 아니고 얼룩이랄지 모르는 침 묻은 종이 위에 눌린 말 같은 거였고 아무도 보지 않았고 보여도 그것이 그것 일거라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건 처음부터 나를 위한게 아니었고 남겨두기 위해 쓴 것도 아니었고 없애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더럽혀지려고 남긴 거였고 그게 말의 형체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말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없었고 틀리지 않으니까 부끄러울 이유도 없었고 다만 끝이 없어졌고 끝이 없으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고 묻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고 말한 것도 아니고 흘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 하나 치워주지 않아서 굿은 계속됐고 마마마만맛만맛 맛만만 다다달 다달달다 다다다다 다 굿굿굿 다다 다 다 꺼지지 않는 연기처럼 남아 있었고 나도 그 속에 섞여 있었고 섞이다 못해 끈적해졌고 그 끈적한 안에서 말이 아니라 냄새로 눕고 있었고 그렇게 묻힌 채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오늘이 갔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천상과 지하 사이,
그 어느 틈에도 속하지 않은 거인이 있어 크기가 하늘 끝까지 이르며 아무리
우러러보아도 끝을 알 수 없으니,
사람이 감히 그 앞에 다가서기를 꺼리고 차라리 이를 두고 절대자라 칭하였
다 하더라.

허나 이는 실로 진실이 아니었는데, 그 거인이라 함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
저 크기가 좀 과한 자였을 뿐이며,
위엄이라 여긴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움을 빚어 만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더라.

그 몸집이 사람보다 열 곱절 크다 하여
그 뜻 또한 깊을 줄 알았으나,
막상 다가가 보면
그 말은 얇고, 눈은 흔들렸으며,
손짓은 허공만을 더듬었으니,
지혜라기 보단 헛된 습관의 잔재에 가까웠다.

그 거인,
자신을 경외치 않는 이를 보고
황망히 팔을 휘저으며 쫓아내고자 하였고,
그 몸짓은 마치
권위의 유효기간이 다한 자가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 같았더라.

내가 그 앞에 선 것도
감히 도전하려 함이 아니요,
그저 익사하지 못한 몸으로 되돌아온 것일 뿐인데,

그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내 다리의 수를 보고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더니
다급히 손을 흔들며 외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른바 절대자라 불리던 이는

실상은

기척의 오류로 과장된 한 시대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신화는
내 앞에서 스스로 기침하며 무너져 내렸더라. 스스로 기침하며 무너져 내렸더라.



다시, 갇힌

오물 안에서 겨우 꺼내놓고 억지로 욕조에 처박아놓은 이에게 붙인 성자라는 말부터 이미 구역질이 난다. 그자는 늘 확보와 배분과 운영의 말투를 갖고 상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악스럽게 입안을 밀고 //위생// 처리해버려서, 말이 나올 때마다 혀가 아니라 그것이 굴리는 활자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굴 속 그림자가 중력을 거슬러 수중의 압력을 따라 산다는 말이 그래서 차라리 더럽게 아름답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자유가 가벼운 날갯짓이 아니라 짓눌림 속의 인정으로 나타나고, 과장되게 부푼 옷과 그것에 달린 가시의 형태를 빌려 위협적인 등껍질을 내비치겠다는 말이, 사실은 위협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위협을 제도가 있는 쪽으로 이관했다고 간주하는 떼떽한 마음의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이 위계를 벗어나는 존재라 말하지만, 언제나 위계를 벗어나는 척하는 절차를 먼저 마련한다. ‘위치’와 ‘관계’라는 단어가 입안에 붙는 순간부터, 그것은 서류가 된다. 행정화가 되어버린 관계는 ‘평등’이라는 포스터 아래 붙어, 그것의 접착제 냄새로 사람들의 호흡을 하나로 만들고, 곧바로 누구도 놓칠 수 없다는 식의 문구로 굳어 붙는다.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경계의 단속이다. 시선은 입자 단위로 규격화되고, 인간은 그 규격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기에, 야생마의 앞발과 뒷발이 함께 들린다는 묘사는 달리기가 아니라 감시의 포즈처럼 보인다. 같은 원리에서, 해양 속의 조개가 입을 뒤로도 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신체의 자유이자 해방이 아니라 방향을 강제로 바꾸는 신체의 정책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이 선을 넘으면 내 머리 뒤와 허벅지에 자유로운 문양이 그려진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렇게 자유는 문양으로만 남았다. 자유를 상징하는 피부의

장식처럼 보이지만 승인 도장처럼, 그렇게 자유는 허가된 형태로만 남았다.

씨앗이 동굴 안에 박혀 있는데, 그는 맞으면서 그것에 쾌를 느낀다고 말했다. 당신은 그걸 쾌락이라고 불렀다. 어쩌면 당신은, 쾌락의 모양을 빌려서 순종을 만지고자 욕망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씨앗을 씨앗으로 살거나 죽도록 두지 않으니 씨앗을 다듬고, 손톱으로 긁고, 겹겹질을 얇게 만들고, 겹질 밑의 물기만 남기고. 그러면 헝크러진 그것은, 씨앗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눌린 방향으로만 자라는 것을 알지. 당신은 그걸 여건이라고, 불식이라고, 균형이라고 부르지. 말은 반듯하지만, 그것은 동굴에서 특히 더 냄새가 난다.

그래도 당신은 표정을 관리하려고 토양을 만진다. 가면을 덧쓰고 거름을 뿌리고 그것이 또 코를 태워. 그러니 토양이 생명인 적이 별로 없지. 불이 타는 게 아니야. 말투가 탄다. 말투가 연기야. 동굴에 연기가 차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지. 그 짙어짐을 네가 자연의 이치처럼 꾸민다. 다 그렇게 되어도 남는 게 그 냄새. 매캐함.

..... 나는 계속 동의라는 청유에 걸려 여태 넘어져 있다. 동의는 차라리 선택이라기보다 문턱과 같은 것. 살아있는지 숨어있는지, 들숨을 남겨두었는지, 이미 다 써버렸는지 따위를 심문하는 낮은 재판대. 그 앞에서 늘 몸을 다 써서 서지 못한다. 과잉이라서 배제되었고, 남는 것은 아주 일부다. 손끝, 발끝, 한 번 머문 시선, 멈췄한 스크롤, 새벽의 접속. 그 일부가 그럴듯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말을 원하니 나는 떠밀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화면은 보여준다고보다, 되비추는 방패에 더 가깝다. 다시, 방패는 거울에 가까운 얼굴로 그 호명을 거부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의 반응을 먼저 고르고, 당신의 실루엣보다 당신의 패턴을 먼저 감각한다. 문제는 이 화

면을 단순히 손에 쥐는 도구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이 쓰는 장비를 대개 도구/기계/기구로 나누고, 개중 기구(Apparat)는 노동의 목적을 띤 도구라기보다 프로그램을 따르는 유희의 장치라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구는 유희를 가장해 노동을 짜낸다. 게임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접속은 실제로 채굴에의 통로다. 망설임도 채굴되고, 너의 새벽도, 관심도, 이미 지난 발화도 채굴된다. 여기서 자유가 실은 가장 값싼 장식이 된다.

이 거울에 비친 인형의 얼굴이 그 자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도 흥미롭지만, 인형 주제에 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래서 부조화를 부르고, 의심이나 왜곡으로 덮어씌운 다음 모르는 척 발뺌할 때에도, 이미 난처한 내 모습을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흥미로운 것이다.





편집자의 글 _정유선

원고를 통해 바라본 김희진 작가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속 주인공, 오바 요조를 묘하게 닮아있었다. 인간성이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사회가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 앞에서 방황한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요조는 세상의 위선과 타인의 마음이 두려워 ‘익살꾼’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 가지만 끝내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한다. 희진 작가 역시, 사회를 견디기 위해 아슬아슬한 가면을 쓴다. 하지만 요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가면 뒤에 숨는 대신 그 틈새로 진솔한 자신의 모습(솔기)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열망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작가가 비정한 세상을 등지는 대신 나름의 방식으로 기꺼이 살아가기 위해 고안해 낸 일종의 ‘생존 레시피’에 가깝다.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스스로를 인간이라 말할 수 있는가. 실존주의의 말처럼, 인간은 완성된 규격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상처 입으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조각해 나가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사회가 정해둔 ‘인간성’이란 맹목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희진 작가는 타인이 정해놓은 그 허상에 갇혀 스스로를 검열하기보다,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상은 요조에게 ‘인간실격’이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자신의 나약함과 위선을 부끄러워하며 끝까지 괴로워했던 그의 비틀린 몸부림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몸짓을 보여준다. 절인 오이로 피리를 부는 그러한 몸짓을.



글·이미지 김희진

편집 정유선



PIGHEAD LAB

기획 및 구성 피그헤드랩

피그헤드랩은 본 서적 제작을 기획 및 주최한 문화공간이자, 종합 잡지인 <월간 피그헤드랩>을 발간하는 출판사이기도 하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피그헤드랩은 다양성을 갖춘 이들의 소통의 장,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유하는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고자 한다.

절인오이로 피리불기

초판 1쇄 발행 2026년 9월 14일

펴낸 곳 피그헤드랩

출판등록 제2020-000112호

홈페이지 pigheadlab.com

메일 pigheadlab@gmail.com

ISBN 979-11-993442-2-8

추상2_162.2x130.3_2023_acrylic and cotton on canvas